

금호타이어, 세계8대 메이커 목표!

군인공제회와 신설법인 설립 완료 ... 금호산업은 부채비율 감축 성공

금호산업의 타이어 사업부문이 구조조정 절차를 모두 끝내고 신설합작 법인인 금호타이어로 7월1일 공식 출범했다.

금호산업 타이어 사업부문 신형인 대표이사과 한국산업은행 이성근 기업금융 본부장은 6월30일 여의도 한국산업은행 본점에서 신설법인 설립에 필요한 마지막 절차로 5220억원(무역금융한도 3000억원 별도) 규모의 신디케이티드론 주선약정을 맺었다.

금호그룹과 군인공제회는 2003년 4월18일 합작으로 자본금 5000억원의 신설법인을 설립키로 계약했으며, 그동안 ▷군인 공제회 이사회와 금호산업의 주주총회 승인 ▷국내외 투자자 유치 ▷주금납입 및 회사 설립등기 등 신설법인 설립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끝낸 상태이다.

신설법인 금호타이어는 이제 세계적인 기업으로 재도약할 기틀을 마련하고 2002년 말 기준 생산규모 3100만본, 매출액 1조4373억원의 세계 10위 규모를 2007년 말까지 매출 2조원의 세계 8대 타이어 메이커로 성장시키려는 계획이다.

우선 2003년 안에 아산 신공장 건설로 생산규모를 200만본 증설하고, 중국남경금호타이어 규모를 현재 500만본에서 2007년 말까지 1000만본으로 증설하는 한편, 해외시장 개척에도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금호타이어는 ▷군인공제회 50% ▷금호산업 30% ▷고려강선과 코오롱, 효성, LG화재 등 국내 투자자 17.25% ▷미국 Rudolph's Incorporated 등 해외 투자자 2.75%의 지분으로 구성돼 있으며, 2006년 쯤 상장시킬 방침이다.

신설법인의 경영은 금호타이어 현 경영진이 맡고, 군인공제회 측은 감사와 자금담당 등 2명의 상근임원을 파견한다.

한편, 금호그룹은 구조조정 완료에 따라 유입되는 자금을 금호산업의 차입금 상환에 사용해 금호산업의 부채비율은 2002년 말 390%대에서 6월 말 현재 200% 이내로 떨어져 재무구조가 크게 개선돼 유동성 확보와 기업체질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금호타이어 신디케이티드론에는 산업은행, 우리은행, 외환은행, 하나은행, 제일은행, 한미은행, 농협, 교보생명, 광주은행 등 9개 금융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며,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조건으로 조달금리는 평균 7.45%이다. <조인경 기자>

<Chemical Journal 2003/07/02>